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보도자료	2021. 10. 24(일)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이철우 도지사, 제11일진호 울진 사고대책본부 방문** - 승선원 가족 위로 및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당부 -	해양수산과	
② **경북도, 포스트코로나 대비 신남방국가 시장개척 박차** - 도내 20개사, 해외구매자 52개사와 25만불 현장 수출계약 체결 - 한국무역협회 대경본부, 뉴델리지부 3자 협력사업으로 추진	외교통상과	
③ **경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사업 실시** - 22년부터 2년간, 세대당 80~200만원 지원 - 중위소득 45~60% 대상, 20년 경과된 단독 및 공동주택 - 내년도 436세대 대상, 공사비 최대 95% 지원	맑은물정책과	
④ **경북도, 여성농업인과 함께 우리 쌀 소비촉진캠페인** - 23일, 경북 바로마켓 內 홍보전시장 운영 - 농산물 구매 시 우리 쌀 증정	농업정책과	
⑤ **쉬어가는 경북구곡길! 걷고, 건강챙기고, 선물받고.** - 올해 12.30일까지 경북구곡길 스탬프 챌린지 운영 -	산림산업관광과	
⑥ **아이가 자란다! 아빠도 자란다! '슈퍼맨 아빠교실' 운영** - 20일 칠곡, 내달 20일 청도에서 부모교육 - 아빠-자녀 교감 프로그램 진행 - 내달 20~21일, 예비부모와 함께하는 임신·출산 아카데미도 진행	인구정책과	
⑦ **단풍 명소 경상북도수목원에서 코로나블루 극복하자!** -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 가을을 품은 수목원에서 모두 날려버리세요	산림자원개발원	

경상북도	보도자료 【21.10.24(일)】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작성자	과 장	박성환		
			사무관	황성수	주무관	옥미선
		연락처	054-880-7731			

이철우 도지사, 제11일진호 울진 사고대책본부 방문

- 승선원 가족 위로 및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당부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3일 독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대책본부를 찾아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실종자 가족을 위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전찬걸 울진군수와 함께 울진 후포수협에 마련된 '어선 제11일진호 전복 사고대책본부'를 방문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로부터 경과보고를 받은 뒤 "지난 20일 울진 어선이 독도 해상에서 전복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 사고대책본부를 찾았다" 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 분이 사망하고 실종자 6분에 대한 구조가 진행 중" 이라며, "목숨을 잃으신 분과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특히 "실종자 가족 분들의 걱정이 매우 크실 텐데 구조 작업을 통해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달라" 라고 했다.

아울러 "사고 직후 지금까지 행정력이 총동원돼 구조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라며, "구조 작업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정환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통화하며 “야간에도 조명탄을 계속 사용해 실종자를 수색해 달라. 실종된 모든 분들을 찾아 낼 때까지 수색을 이어가 달라” 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지사는 촬영팀을 남겨둔 채 사고대책본부 옆에 마련된 사고 선원 가족 대기실을 찾았다.

이 지사는 가족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갑자기 변을 당해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냐” 라며, “열심히 수색은 하고 있는데 기상 악화와 심한 풍랑으로 아직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빨리 실종되신 분들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또 사고대책본부에는 “매일 가족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시로 수색 상황을 전해달라” 라고 지시했다.

이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남은 분들을 찾아달라” 라고 요청하며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20일 사고가 발생하자 바로 울진에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강성조 행정부지사를 사고대책본부로 보내 사고 수습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총괄 지휘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난항을 겪자 행정선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도록 21일 지시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1.10.24(일)】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실 외교통상과			
		작 성 자	과 장	이 응 원		
			사무관	임은진	주무관	임흥식
		연 락 처	054-880-2733			

경북도, 포스트코로나 대비 신남방국가 시장개척 박차

- 도내 20개사, 해외구매자 52개사와 25만불 현장 수출계약 체결 -

- 한국무역협회 대경본부, 뉴델리지부 3자 협력사업으로 추진 -

경상북도는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인도 뉴델리지부와 공동으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대구무역회관에서 ‘2021 경북도 생활소비재 인도·태국 구매자 매칭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중산층 인구 증가로 수입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신남방 주요국 인도, 태국시장을 대상으로 지역 소비재 중소기업의 시장선점을 위해 마련됐다.

포스트코로나시대 신남방국가 소비자들의 보복소비(Pent-up Effect)에 대비한 선제적 해외시장개척 활동지원 차원이다.

지역 화장품, 식품, 생활소비재 품목을 대표하는 수출기업 20개사와 태국, 인도 유력 유통구매자 52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총 104건의 수출 상담이 진행돼 529만 달러의 수출상담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상담회에 참가한 경산에 소재한 식품(분말소스, 라볶이 밀키트) 제조기업 ‘더밥(정혁식 대표)’은 인도의 ‘Korikart社’를 통해 1년

간 5만 달러 상당의 자사 브랜드 제품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신발건조살균기를 자체 개발해 브랜딩에 성공한 스타트업인 '스마트름뱅이(윤해진 대표)' 역시 태국지역 바이어와 2년간 5만 달러 등 총 25만 달러의 현장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대구경북지역본부는 인도 뉴델리지부의 네트워킹을 활용해 인도지역 해외구매자에 대한 섭외 및 검증을 철저히 진행했다.

이에 구매력 있는 현지 구매자들의 상담회 참가를 이끌어 내며 경북도와 한국무역협회간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성공적인 협력모델을 구축했다.

배성길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인도, 태국 등 신남방 국가의 한국산 소비재의 수요증가에 발맞춰 개최된 시의성 있는 행사"라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미주, 유럽시장을 시작으로 다양한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사업을 전개해 지역 수출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1.10.24(일)】	담당부서	환경산림자원국 맑은물정책과		
		작성자	과 장	박 기 완	
			팀 장	서동균	주무관 강명수
		연 락 처	054-880-3578		

경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사업 실시

- 22년부터 2년간, 세대당 80~200만원 지원 -

- 중위소득 45~60% 대상, 20년 경과된 단독 및 공동주택 -

- 내년도 436세대 대상, 공사비 최대 95% 지원 -

경북도는 노후 옥내급수관으로 인한 수돗물 녹물발생 민원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각 가정에 공급하기 위해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옥내 급수관은 각 가정의 수도계량기에서 건물 내 설치된 수도꼭지 직전까지의 급수관(저수조는 제외)이다.

정수장에서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더라도 저수조나 수도꼭지, 옥내급수관과 같은 수도설비의 관리 상태에 따라 수질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옥내급수관은 건물 소유주가 관리해야 하지만 정비의 강제성이 없고 비용 발생으로 인해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노후화로 인해 녹물 등 수질저하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내년부터 2년간 노후 옥내 급수관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내년에는 5개 시군 5억2300만 원(국비 3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한 세대 당 8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원해 436세대를 개선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5~60% 중 20년 이상 경과된 아연도강관 재질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단독 및 공동주택을 우선순위로 하며, 지원액은 전체 공사비의 최대 95%이다.

사업은 신청인이 개량 지원을 신청하면 시군 상수도부서에서 승인해 주고, 신청인이 시공한 후 지원 신청을 하면 사업비를 정산·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건물 내 노후급수관으로 인한 녹물 발생 등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1.10.24(일)】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농업정책과		
		작 성 자	과 장	김대식	
			팀 장	유재상	담당자	박세은
		연 락 처	054-880-3322		

경북도, 여성농업인과 함께 우리 쌀 소비촉진캠페인

- 23일, 경북 바로마켓 內 홍보전시장 운영 -
- 농산물 구매 시 우리 쌀 증정 -

경상북도는 23일 대구 북구에 위치한 경북바로마켓(농업자원관리원 내)에서 여성농업인과 함께 우리 쌀 소비촉진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 탄수화물군의 부정적 인식, 먹거리 다양화 등으로 인해 쌀 소비량이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쌀의 긍정적 인식 제고와 건강한 이미지를 강조해 쌀 소비를 활성화 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 바로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농산물을 3만 원 이상 구매할 경우 경북 명품쌀 500g, 4만 원 이상 구매 시 떡국떡 500g 교환권을 증정했다.

또한,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쌀 음식과 가공식품을 전시하고, 지역 쌀로 만든 떡 시식 행사는 소포장 나눔 행사로 대체했다.

아침밥을 챙겨 먹는 습관으로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쌀 소비를 늘리

자는 차원에서 자녀를 동반한 소비자에게는 김자반을 나눠 주는 아침밥 먹기 캠페인도 함께 추진했다.

한편, 여성농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단체인 한국여성농업인 경북연합회(회장 김미점)가 이번 행사를 주관했다.

이 단체는 농촌지역 내 성평등 인식개선과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이웃사랑 나눔을 위한 성금전달과 김장 나눔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로 우리 쌀이 외면 받고 있어 안타깝다. 본 행사를 통해 쌀 소비 활성화와 건강한 먹거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다시뛰자 경북

2021년 우리쌀소비촉진캠페인 행사

개 요

- 일 시 : 2021. 10. 23.(토) 10:00 ~ 16:00
- 장 소 : 농업자원관리원 內(바로마켓)
- 규 모 : 2개 부스(6m×3m, 3m×3m)
- 인 원 : 30명 정도(한여농 도 임원 및 시군 회장)
- 주최/주관 : 한국여성농업인 경상북도연합회

운영계획

- 도내 우수 쌀 전시·홍보, 다양한 쌀 음식 전시 등
  - 전시음식 : 도내(23개 시군) 쌀·가공음식 전시
  - 홍보물품 : 쌀, 떡국 떡 등 배부
  - 시식코너 : 경북쌀로 만든 떡 시식용 소포장 나눔행사
- 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

【 (사)한국여성농업인 경상북도연합회 현황 】

- **회 장** : **김 미 점**(56세, 군위, 사과)
- **설립일자** : 1997. 2. 17.(농식품부 허가 '96.8.24.)
- **조직현황** : 도 1, 시군 23, 읍면동 187
- **회 원 수** : 10,468명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0. 24(일)】	담당부서	환경산림자원국 산림산업관광과		
		작 성 자	과 장	이 재 훈	
			팀 장	이덕규	주무관 박정아
		연 락 처	054-880-3624		

쉬어가는 경북구곡길! 걷고, 건강챙기고, 선물받고

- 올해 12.30일까지 경북구곡길 스탬프 챌린지 운영 -

경상북도는 올해 12월 30일까지 모바일 앱 ‘워크온(walkon)’을 활용한 ‘경북구곡길 스탬프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스탬프 챌린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6개 시군 5개 구곡의 걷기 행사와 연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상시 비대면 경북구곡길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방법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워크온’앱 설치와 회원가입 후 ‘구곡길 스탬프챌린지’에서 참여하기를 누르면 된다.

참가자는 설정된 각 시군의 구곡지점에 도착하면 스탬프가 자동으로 등록되며, 시군의 챌린지를 성공하면 카페음료교환권, 지역대표상품교환권 등 해당 시군 지역의 협력업체 쿠폰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구곡길 홈페이지(www.99gil.com)를 참고하면 된다.

6개 시군 5개 구곡을 모두 완주한 참가자는 명예의 길동무로 홈페이지에 등록되고 다양한 구곡길 기념품도 받게 된다.

한편, 경북구곡길 걷기는 지난달 11일 안동 하회구곡을 시작으로, 2일 상주 용유구곡, 16일 성주 무흘구곡(1~4곡), 23일 문경 선유구곡, 31일 영주 죽계구곡, 내달 6일 김천 무흘구곡(5~9곡)까지 6회에 걸쳐 매회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진행하고 있다.

경북구곡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구곡(九曲)은 아홉 굽이라는 뜻으로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깊은 산속의 경치 좋은 곳을 찾아 학문을 닦기 시작하면서 구곡문화가 유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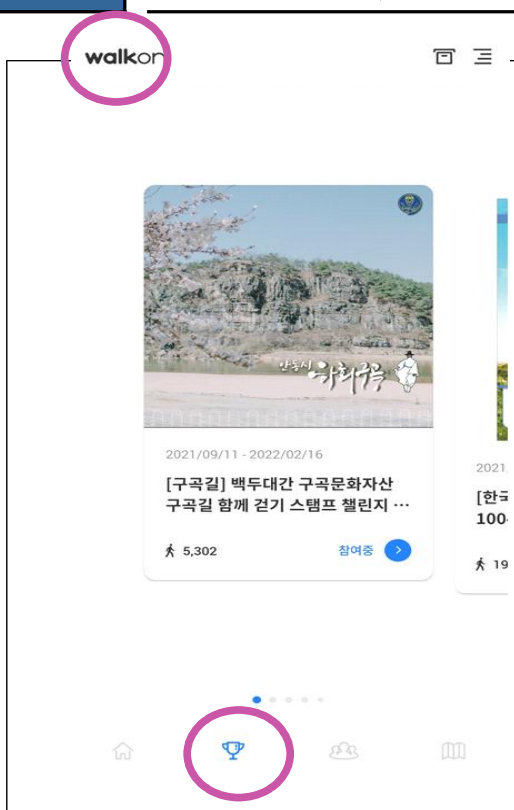
경북도에는 도산구곡, 선유구곡 등 43개소의 구곡이 남아있어 전국 150여개 구곡 중 28%를 차지하고 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구곡길 비대면 걷기프로그램을 통해 가을의 풍광을 감상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경북의 숲 걷기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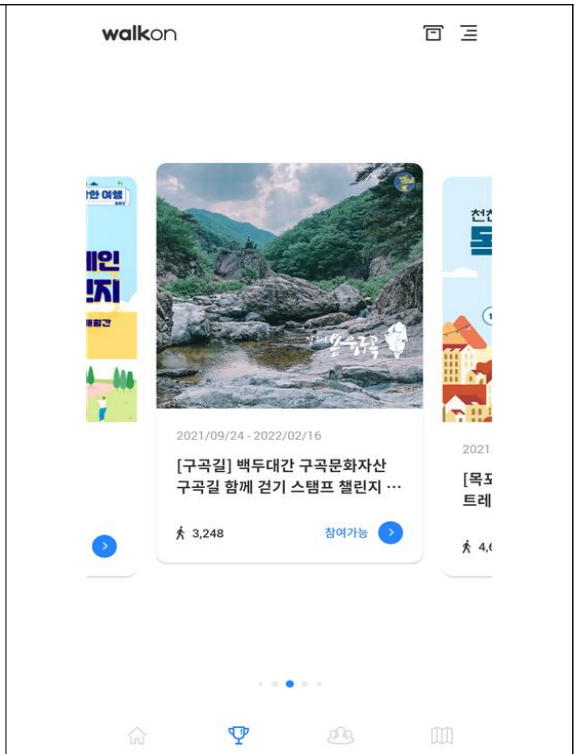
참고 5개 구곡 시군별 스토리 및 테마

구곡명	주요 스토리	테마	뱃지	행사일시
안동시 하회구곡	하회마을은 꽃의 산이라는 '화산'을 등지고, 마을을 둘러 흐르는 물을 바라보는 풍수지리 지형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절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 형형색색으로 변하는 무지개다리(섶다리)가 특징이다.	<미美>		9/11(토) 16시
상주시 용유구곡	우리 선조들은 기묘한 경관에 용(龍)자를 붙여 이름 지었다. 특히 상주 화북의 용유동은 온 나라를 통틀어서도 으뜸이라 여겨졌다. 옛날 용이 노닐었다고 할 정도로 눈과 마음을 깜짝 놀랄 정도로 기이한 풍치를 자랑한다.	<건강>		10/2(토) 12시
성주군 무흘구곡	무흘구곡 최초 경영자, 한강 정구. 성주 무흘구곡은 한강 정구의 강학, 배움의 공간이다. 정구는 퇴계 이황과 남명 조식의 학통을 이어받은 대학자로, 어릴적 부터 신동으로 불렸으며 두 학자의 장점을 골고루 물려받은 인물.	<배움>		10/16(토) 12시
문경시 선유구곡	1곡 옥하대-세상을 살면서 목표하는 최고를 달성한다는 계시를 받는 곳 5곡 관란담-물을 바라볼 땐, 여울목과 원류를 보라. 빛이 비치면 달이 있고 해가 있기 때문. 겉보다는 속, 진리를 보라는 의미를 담은 곳	<사색>		10/23(토) 12시
영주시 죽계구곡	4곡 이화동[배점마을] : 배순은 퇴계 이황의 평민 제자였다. 쇠를 다루던 대장장이로 신분은 낮았으나 학문을 알았고, 충성심도 깊었던 인물로 꼽힌다. 퇴계 선생의 3년 상을 지내 스승에 대한 예를 다했으며 모범을 보였다.	<성실>		10/30(토) 12시
김천시 무흘구곡	김천 무흘구곡은 한강 정구에게 은거의 공간이다. 1604년 한강 정구는 62세의 나이에 7곡 만월담에 무흘정사를 짓고 몸과 마음을 수양했다. 서책을 보관하고 사람들을 피해서 편히 쉬는 장소로 선택했다.	<치유>		11/6(토) 12시

참고 워크온 (스탬프 챌린지) 예시



안동시 하회구곡편



상주시 용유구곡편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10. 24(일)】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작 성 자	과 장	유 정 근	
			사무관	정창호	주무관	김민경
		연 락 처	054-880-4520		

아이가 자란다! 아빠도 자란다! ‘슈퍼맨 아빠교실’ 운영

- 20일 칠곡, 내달 20일 청도에서 부모교육 -,
- 아빠-자녀 교감 프로그램 진행 -
- 내달 20~21일, 예비부모와 함께하는 임신·출산 아카데미도 진행 -

경상북도는 행복한맘만들기경북본부와 함께 도내 미취학아동과 아빠 약 50여팀을 대상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공동육아 인식 활성화를 위한 ‘슈퍼맨 아빠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슈퍼맨 아빠교실’은 아빠육아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확산시켜 함께하는 육아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육아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 강의, 아빠-자녀 간 유대관계 및 교감 형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지난해는 성주·포항·경주·울릉 4개 지역에서 90팀(180명)이 참여해 요리체험, 미니운동회, 부모교육 등 다양한 활동으로 아빠와 아이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1차로 23일 칠곡군 어린이집에서 아빠-자녀 20팀(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음악놀이 ‘둠치타 놀이터’ ▷목공놀이 ‘캄포도마 만들기’ ▷‘자기주도적 학습법’ 강의를 구성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아버지 김○○씨는 “육아에 서툰 아빠라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복했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더욱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

또한, 내달 20일에는 청도군에서 다양한 육아방법 강의, 아빠-자녀 체험활동 등으로 구성된 2차 행사를 진행해 가족이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공동육아 인식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예비부모와 함께하는 임신·출산 아카데미’를 추진한다.

내달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에 걸쳐 도내 거주하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20쌍을 대상으로 건강한 가족과 출산·육아 교육 및 태교음악회 등을 진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부부는 내달 7일까지 행복한맘만들기경북본부(☎ 054-371-9081)로 신청하면 된다.

유정근 경북도 인구정책과장은 “슈퍼맨 아빠교실을 통해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양성평등 육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슈퍼맨 아빠교실

❖ 아빠와 미취학아동이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아빠-자녀 유대강화
❖ 공동육아 인식개선 확대를 통한 저출생 극복 기반 마련

개 요

○ 일 시 : 2021. 10. 23.(토) 09:30 ~ 13:00
○ 장 소 : 칠곡 유진어린이집 ※ 2차 : 청도군(11. 20)
○ 인 원 : 40명(도내 거주 미취학 자녀와 아빠 20팀)
○ 주최/주관 : 경상북도/(사)행복한맘만들기경북본부
○ 주요내용 : 부모교육, 아빠-자녀 교감프로그램 등

2020년 추진결과

구분	인원	일 자	내 용	비 고
합계	180명	4회		
성주	52명	10.24.(토)	부모교육, 요리체험, 음악놀이, 목공놀이	
포항	40명	10.24.(토)	전래놀이, 요리교실, 트랙터체험, 감따기체험	
경주	46명	10.31.(토)	부모교육, 요리교실, 미니운동회	
울릉	42명	11.9.(월)~11.20.(금)	모래놀이(11.9~11.13)부모교육(11.9~11.20)	비대면 온라인 진행

시간계획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09:30~09:50	20′	○ 등록	
09:50~10:00	10′	○ 개회식	
10:00~11:00	60′	○ **부모교육** (주제) 지금은 자기주도적 학습 "혼·공 시대" - 자녀의 자긍심을 키우는 치료적 칭찬의 힘	김호순 (대구 가족상담센터 부소장)
11:00~12:30	90′	○ **아빠-아이 사랑 나누기** - 음악놀이 - 둠치타 놀이터 - 목공놀이 – 캄포도마 만들기	김명은 (코앤코뮤직) 이제경 (다원교육)
12:30~13:00	30′	○ 평가 및 수료식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10. 24(일)】	담당부서	산림자원개발원 수목원관리소			
		작 성 자	원 장	정 철 화		
			소 장	전영수	주무관	김진우
		연 락 처	054-260-6141			

단풍 명소 경상북도수목원에서 코로나블루 극복하자!

-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 가을을 품은 수목원에서 모두 날려버리세요 -

경상북도수목원은 22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수목원의 단풍 절정기로 예상하고 숲 속 둘레길, 실내 전시 공간, 야외 관람구역을 새롭게 단장해 방문객이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고산지대(해발 650m)에 위치한 경북수목원은 포항 북구 3개 면(죽장면, 청하면, 송라면)에 걸쳐 있는 방대한 도유림(3161ha, 축구장 4427개 면적)을 포함하고 있다.

이 도유림은 천연상태로 보전돼 온 산림으로 100여 년 이상 된 거목도 흔히 볼 수 있을 만큼 잘 보존돼 있다.

추운 고산지대에서는 보기 드물게 다양한 활엽수가 숲을 이루고 있어 20여 km에 달하는 둘레길을 따라 아름다운 단풍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일교차가 심한 올해 단풍은 어느 해보다 색채가 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목원 생태관찰로에서 신라고찰 보경사로 이어지는 등산로에는 내연산 12폭포를 품은 맑은 계곡과 능선을 따라 펼쳐진 절경을 즐기기 위해 전국 등산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매년 20만 명 이상이 다녀간다.

경북수목원 관람구역은 도민에게 몸과 마음이 힐링 되는 자연생태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거리두기 식사광장, 생태관찰로 등 환경을 새롭게 정비하여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러 방송통신(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및 유튜브 등)에서 수목원의 아름다운 모습과 특별한 테마 전시원을 주제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촬영하기 위한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의 촬영 장소(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시장)가 유명세를 타면서 인접지역인 수목원의 방문 빈도와 인기도 함께 상승하는 추세다.

또한, 道내 유일의 공립수목원인 경북수목원은 소중한 우리의 식물유전자원을 미래세대에게 보전하기 위한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보전연구 성과는 숲속갤러리, 숲속도서관, 숲해설전시관 등 전시·교육시설에 소개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학술표본, 레진표본, 종자표본 등 다양한 산림 정보미디어로 제공하고 있다.

정철화 경북 산림자원개발원장은 “수목원에서 잘 보존돼 온 활엽수림의 다채로운 단풍은 전국 어느 곳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답고 매력적이다”라며, “소중한 식물유전자원의 보전연구는 물론 특색 있는 관람구역을 조성해 전 국민이 찾는 명품 수목원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